

여성복의 구매빈도에 의한 선호도 및 치수 시스템 인지도에 관한 분석

구 희 경

한양여자대학 섬유디자인과 교수

Analysis of Preferences Based on Purchasing Frequencies and Recognitions of Sizing System for Female Garments

Hee-Kyung Koo

Prof., Dept. of Textile Design, Hanyang Women's University
(2010. 12. 2. 접수; 2011. 1. 21. 수정; 2011. 1. 26. 채택)

Abstract

The research is a survey and analysis of female apparel preferences, and recognition of the KS sizing system for adult female garments. The practical surveys in this research are examined by total number of subjects, 200 women who are living in Seoul, South Korea. The homogeneity test using Chi-square statistics, and the analysis of frequencies and ratios of contingency tables were performed with the data which are classified by ag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and housing modalities. The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omen's preferences for purchasing female garmen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ubjects, such as ag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and housing modalities. Moreover, the following five types of adult female garment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upper garment, lower garment, one-piece apparel, sportswear and sleepwear.

The results of the preference study show an indirect understanding of the KSK 0051 classification system for subjects of the survey.

Therefore the preference study can be used as a pilot study for the sizing recognition survey.

2. Women's recognition of the KSK 0051 sizing system for adult female adult garments do not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g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and housing modalities. The low recognition of the KS sizing system is due to too many details and complex numbers of application for users. Therefore, the sizing system should be simplified and rearranged to be more effective and have more recognizable categories.

Key Words: KSK 0051(성인 여성복의 치수), Preference of female apparel(여성복의 선호도), Recognition of KS sizing system(KS 치수 인지도 조사), Practical survey(실증조사), Analysis of frequencies and ratios of contingency table(범주형 자료의 빈도 비율분석)

Corresponding author ; Hee-Kyung Koo

Tel. +82-2-2290-2420, Fax. +82-2-2290-2438

E-mail : hkkoo60@hotmail.com

※ 본 논문은 2008년도 1학기 한양여자대학 교내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됨.

I. 서론

경제 성장과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미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차별화된 미를 추구하는 경향을 가져왔다. 또한 의상은 자아개념, 가치관, 성격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 참여의 자기표현 수단으로써의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풍조 및 나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직접 입어 보고 구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의복 구매 시, 호칭 표기만으로도 자신의 체형에 맞는 의복을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성복 호칭치수체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치수체계에 대하여는 성인남성(성국진, 양정은 2010)(강여선, 성화경 2007), 성인여성(김경화, 남윤자 2004)(이희춘, 이원자 2005), 노년기실버세대(정삼호, 김수아 2006), 노년여성(이정임, 주소령 2004), 여자아동(구희경 2007) 등을 대상으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치수체계는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표기방법이기 보다는 제조사 중심으로 생산성 및 재고 관리의 효율화 관점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치수표기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나 문제점에 대한 연구 및 합리적인 치수 체계를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KS국가 표준치수체계가 제정되어 보급되고 있으나, 미국, 유럽의 소비자가 의복선택 시 치수적합성을 중시하는 반면에 한국 소비자는 치수 보다는 의복 선택 시 디자인 및 브랜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나라의 소비자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호칭표기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의복은 매일 우리가 몸에 직접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사이즈 및 체형에 맞는 치수를 선택하는 것은 편안한 착용감과 맵시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인체 친화적(전중숙, 1996)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형 특징을 반영하지 않은 제조사 중심의 다소 일률적인 그레이딩과 치수 표기에 대한 문제점 등은 소비자들의 치수 선택의

불편과 피트성에 대한 불만족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시장과의 상호호환 시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규격 ISO에서는 생산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인 표준체계를 벗어나 고객의 관점에서 표준치수체계를 인지하기 쉬운 방향으로 재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 규격이 국제 규격을 따르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9년 국제 규격을 기준으로 ‘한국산업규격’ 의류호칭치수 체계를 제정하여 의류생산업체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산업규격 KSK0051은 만 18세에서 만59세까지의 성인여성을 위한 의류호칭치수체제로,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키 등과 같이 규정한 필요항목의 기본신체치수로 의류종류별 호칭을 표기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단 필요에 따라서 S(Small), M(Medium), L(Large), XL(Extra Large) 또는, 키에 관한 표시로 P(Potite), R(Regular), T(Tall)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 등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도 KSK 한국산업규격 호칭보다, 1980년대 쓰이다가 1999년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규격표시인 44, 55, 66 호칭으로 치수 적합성 판단이 편리하다고 응답하고 있다(전중숙1996). 이에 따라 의류업체에서는 의복의 종류에 따라 KSK호칭치수체계를 사용하거나 이전에 사용된 다양한 호칭체계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어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업규격 KSK0051 호칭체계와 연계하여 다수의 대상이 만족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통일된 호칭체계의 정립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치수적합성이 높은 의복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항목이 반영된 합리적인 호칭체계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현재 호칭표시에 사용되고 있는 ‘한국산업규격’ KSK0051에서 제시한,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등 기본신체치수 외에 밑위길이, 등길이, 소매길이, 어깨사이길이, 다리가쪽길이 등과 같은 참고신체치수를 부가항목으로 활용한 호칭체계의 제시를 위하여 소비자의 기본신체치수 및 참고치수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KSK0051 호칭치수체계 자료에 제시된 기본신체치수와 참고신체치수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조사하여 부가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체 항목을 밝혀내고, 의복 호칭표기에 있어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및 범위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 대상은 서울 및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 여성 250명을 임의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2010년 4월 10일~5월 21일 까지 60명을 대상으로 KSK0051의 성인여성복 분류체계에 따른 의복종류를 제시하고, KSK0051에 의거한 의류별 신체치수, 참고치수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설문지를 임의 작성하여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설계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6월 25일~8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응답 자료로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표 1>과 같이 연령대, 교육 정도, 월 소득수준, 주거형태로 구분하고 균일한 비율로 수집된 설문지 200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대	20대	52	26
	30대	55	27.5
	40대	50	25
	50대	43	21.5
교육 정도	고졸	68	34
	대졸	85	42.5
	대학원 이상	47	23.5
월 소득 수준	200만원	86	43
	300만원	62	31
	400만원	52	26
주거 형태	아파트	126	63
	일반 주택	74	37

2. 연구내용

첫째, KSK0051에 제시된 의복종류별 조사대상자의 구매빈도에 따른 선호도를 분석한다.

둘째,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선호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호칭표기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분석한다.

셋째, KSK0051 호칭치수체계 자료에 제시된 기본신체치수와 참고신체치수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조사하여, 부가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체 항목을 밝혀낸다.

3. 조사 도구 및 분석 방법

설문지 문항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KS에 표기된 명칭에 의거한 의복 종류별 선호도, KSK0051 호칭 치수에 제시된 기본 신체치수와 참고신체치수의 인지도에 관한 문항으로 설계하였다.

조사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분할표에 의한 Chi-square 검증과 빈도 및 비율 분석 (Frequency and Ratio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의복 구매 빈도에 따른 선호도 분석 결과

1) 상의 종류별 구매빈도에 따른 선호도

<표 2-1>에서 보면 선호하는 상의 종류는 연령별에 따라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대빈도 보다 관측빈도가 높으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2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셔츠류 상의, 30대는 캐주얼 상의, 40대 50대는 편물제 상의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40대 50대는 체형변화가 많아 편안한 의복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40대 50대를 위한 편물제 의복인 경우 체형 특성을 고려한 치수 표기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2-1> 연령별 선호도

관측빈도(기대빈도)

연령 \ 종류	정장상의	캐주얼상의	편물제상의	셔츠류 상의	계(명)
20대	11(9.62)	18(17.16)	7(18.20)	16(7.02)	52
30대	12(10.18)	26(18.15)	13(19.25)	4(7.43)	55
40대	8(9.25)	10(16.50)	26(17.50)	6(6.75)	50
50대	6(7.96)	12(14.19)	24(15.05)	1(5.81)	43
계(명)	37	66	70	27	200

Chi-Sq = 43.01^{0***}, DF = 9, P-Value = 0.000

*** P<0.001, ** P<0.01, * P<0.05

<표 2-2> 교육수준별 선호도

관측빈도(기대빈도)

교육수준 \ 종류	정장 상의	캐주얼 상의	편물제 상의	셔츠류 상의	계(명)
고 졸	6(11.90)	18(13.60)	26(27.88)	18(14.62)	68
대 졸	15(14.88)	16(17.00)	38(34.85)	16(18.28)	85
대학원졸	14(8.23)	6(9.40)	18(19.27)	9(10.11)	47
계(명)	35	40	82	43	200

Chi-Sq = 11.374, DF = 6, P-Value = 0.077

*** P<0.001, ** P<0.01, * P<0.05

<표 2-3> 소득수준별 선호도

관측빈도(기대빈도)

소득수준 \ 종류	정장 상의	캐주얼 상의	편물제 상의	셔츠류 상의	계(명)
200만원	17(30.53)	30(18.92)	27(25.37)	12(11.18)	86
300만원	28(22.01)	9(13.64)	19(18.29)	6(8.06)	62
400만원	26(18.46)	5(11.44)	13(15.34)	8(6.76)	52
계(명)	71	44	59	26	200

Chi-Sq = 23.702**, DF = 6, P-Value = 0.001

*** P<0.001, ** P<0.01, * P<0.05

<표 2-4> 주거형태별 선호도

관측빈도(기대빈도)

주거형태 \ 종류	정장 상의	캐주얼 상의	편물제 상의	셔츠류 상의	계(명)
아파트	45(40.95)	20(22.68)	38(41.58)	23(20.79)	126
일반주택	20(24.05)	16(13.32)	28(24.42)	10(12.21)	74
계(명)	65	36	66	33	200

Chi-Sq = 3.406, DF = 3, P-Value = 0.333

*** P<0.001, ** P<0.01, * P<0.05

<표 2-2>와 <표2-4>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수준별, 주거형태별에 따른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정장 상의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대상은 캐주얼 상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2-3참조>

2) 하의 종류별 구매 빈도에 따른 선호도

<표 3-1>과 <표 3-2>, <표 3-3>에서 보면 선호하는 하의 종류는 연령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캐주얼 하의, 40대는 정장 하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40대가 사회활동을 가장 왕성히 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들 연령대를 타겟으로 할 경우 연령별 체형특징을 반영한 호칭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학력, 고소득자일수록 정장하

<표 3-1> 연령별 선호도

관측빈도(기대빈도)

연령	종류	정장 하의	캐주얼 하의	계(명)
20대		14(24.44)	38(27.56)	52
30대		26(25.85)	29(29.15)	55
40대		37(23.50)	13(26.50)	50
50대		17(20.21)	26(22.79)	43
계(명)		94	106	200

Chi-Sq = 24.011***, DF = 3, P-Value = 0.000

*** P<0.001, ** P<0.01, * P<0.05

<표 3-2> 교육수준별 선호도

관측빈도(기대빈도)

교육수준	종류	정장 하의	캐주얼 하의	계(명)
고졸		26(32.64)	42(35.36)	68
대졸		40(40.80)	45(44.20)	85
대학원졸		30(22.56)	17(24.44)	47
계(명)		96	104	200

Chi-Sq 7.346*, DF = 2, P-Value = 0.025

*** P<0.001, ** P<0.01, * P<0.05

<표 3-3> 소득수준별 선호도

관측빈도(기대빈도)

소득수준	종류	정장 하의	캐주얼 하의	계(명)
200만원		36(49.02)	50(36.98)	86
300만원		40(35.34)	22(26.66)	62
400만원		38(29.64)	14(22.36)	52
계(명)		114	86	200

Chi-Sq = 14.955***, DF = 2, P-Value = 0.001

*** P<0.001, ** P<0.01, * P<0.05

<표 3-4> 주거형태별 선호도

관측빈도(기대빈도)

주거형태	종류	정장 하의	캐주얼 하의	계(명)
아파트		85(80.64)	41(45.36)	126
일반주택		43(47.36)	31(26.64)	74
계(명)		128	72	200

Chi-Sq = 1.770, DF = 1, P-Value = 0.183

*** P<0.001, ** P<0.01, * P<0.05

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저학력, 저소득자인 경우 캐주얼하의의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표 3-4>에서 보면 주거형태별 선호도에는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하연결 의류 종류별 구매빈도에 따른 선호도

<표 4-1>과 <표 4-2>, <표 4-3>에서 보면 선호하는 상하연결 의류 종류는 연령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는 캐주얼 원피스를 선호하였으며, 연령이 증가 할수록 정장 원피스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주얼 원피스에 비해 정장원피스가 피트니스를 요구하므로 연령별 체형 특성을 반영한 호칭표시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장원피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형태별 선호도에는 유의차가 없었다.

<표 4-1> 연령별 선호도

관측빈도(기대빈도)

연령	종류	정장 원피스	캐주얼 원피스	계(명)
20대		20(29.90)	32(22.10)	52
30대		34(31.63)	21(23.38)	55
40대		31(28.75)	19(21.25)	50
50대		30(24.73)	13(18.28)	43
계(명)		115	85	200

Chi-Sq = 11.195*, DF = 3, P-Value = 0.011

*** P<0.001, ** P<0.01, * P<0.05

<표 4-2> 교육수준별 선호도

관측빈도(기대빈도)

교육수준	종류	정장 원피스	캐주얼 원피스	계(명)
고졸		28(36.72)	40(31.28)	68
대졸		50(45.90)	35(39.10)	85
대학원졸		30(25.38)	17(21.62)	47
계(명)		108	92	200

Chi-Sq = 7.126*, DF = 2, P-Value = 0.028

*** P<0.001, ** P<0.01, * P<0.05

<표 4-3> 소득수준별 선호도

관측빈도(기대빈도)

소득수준	종류	정장 원피스	캐주얼 원피스	계(명)
200만원		22(36.12)	64(49.88)	86
300만원		30(26.04)	32(35.96)	62
400만원		32(21.84)	20(30.16)	52
계(명)		84	116	200

Chi-Sq = 18.704***, DF = 2, P-Value = 0.000

*** P<0.001, ** P<0.01, * P<0.05

<표 4-4> 주거형태별 선호도

관측빈도(기대빈도)

주거형태	종류	정장 원피스	캐주얼 원피스	계(명)
아파트		68(72.45)	58(53.55)	126
일반주택		47(42.55)	27(31.45)	74
계(명)		115	85	200

Chi-Sq = 1.738, DF = 1, P-Value = 0.187

*** P<0.001, ** P<0.01, * P<0.05

4) 운동복 종류별 구매빈도에 따른 선호도

전신용 운동복은 수영복, 체조복, 발레복이 포함되며 상의는 트레이닝복 상의, 하의는 트레이닝복 하의, 레깅스, 타이츠 등을 의미한다.

<표 5-1>, <표 5-2>, <표 5-3>, <표 5-4>를 살펴보면 연령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주거형태별 운동복에 대한 선호도에는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운동복종류에 대해 고르게 관심을 보인 결과로, 웰빙(Well Being), 로하스(LOHAS)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운동복에 대한 이용도와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종류별 운동복의 치수 만족도 및 호칭 표기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5-1> 연령별 선호도

관측빈도(기대빈도)

연령	종류	전신용	상의	하의	계(명)
20대		18(26.26)	22(16.12)	12(9.62)	52
30대		26(27.78)	19(17.05)	10(10.18)	55
40대		28(25.25)	12(15.50)	10(9.25)	50
50대		29(21.72)	9(13.33)	5(7.96)	43
계(명)		101	62	37	200

Chi-Sq = 11.770, DF = 6, P-Value = 0.067

*** P<0.001, ** P<0.01, * P<0.05

<표 5-2> 교육수준별 선호도

관측빈도(기대빈도)

교육수준	종류	전신용	상의	하의	계(명)
고졸		22(28.22)	26(22.44)	20(17.34)	68
대졸		38(35.28)	27(28.05)	20(21.68)	85
대학원졸		23(19.51)	13(15.51)	11(11.99)	47
계(명)		83	66	51	200

Chi-Sq = 3.836, DF = 4, P-Value = 0.429

*** P<0.001, ** P<0.01, * P<0.05

<표 5-3> 소득수준별 선호도

관측빈도(기대빈도)

소득 수준	종류			
	전신용	상의	하의	계(명)
200만원	32(40.42)	28(27.09)	26(18.49)	86
300만원	34(29.14)	18(19.53)	10(13.33)	62
400만원	28(24.44)	17(16.38)	7(11.18)	52
계(명)	94	63	43	200

Chi-Sq = 8.702, DF = 4, P-Value = 0.069
 *** P<0.001, ** P<0.01, * P<0.05

<표 5-4> 주거형태별 선호도

관측빈도(기대빈도)

주거 형태	종류			
	전신용	상의	하의	계(명)
아파트	68(63.00)	38(37.80)	20(25.20)	126
일반주택	32(37.00)	22(22.20)	20(14.80)	74
계(명)	100	60	40	200

Chi-Sq = 3.975, DF = 2, P-Value = 0.137
 *** P<0.001, ** P<0.01, * P<0.05

2. 의복 종류별 사용치수 인지도 분석 결과

1) 정장 상의, 정장 원피스 호칭 치수 인지도

<표 6>은 KSK0051 정장 상의, 정장 원피스에 사용된 기본신체치수 및 참고신체치수에 대한

<표 6> 정장 상의, 정장 원피스 KSK 0051 호칭 치수 인지도

[단위: 명(%)]

KS 호칭 치수	기본 신체 치수			참고 신체 치수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키	허리둘레	등길이	어깨사이 길이	팔길이
빈도	185 (93%)	112 (56%)	190 (95%)	192 (96%)	18 (9%)	5 (2.5%)	82 (21%)

<표 7> 정장바지, 정장스커트의 호칭 치수 인지도

[단위: 명(%)]

KS 호칭 치수	기본 신체 치수			참고 신체 치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다리가쪽길이	살았뒤길이
빈도	178 (89%)	109 (55%)	192 (96%)	8 (4%)	6 (3%)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기본신체치수인 키 95%, 가슴둘레 93%, 엉덩이둘레는 56%가 인지하였으며, 참고신체치수인 등길리와 팔길리는 각각 9%와 21%, 특히 허리둘레는 96%로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장 상의와 정장 원피스의 경우에 있어서 피트성은 중요한 요소임으로 기본신체 치수 이외에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허리둘레를 부가 표기한다면 치수적합도가 높은 의복 구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엉덩이둘레는 의복선택 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에 비해 인지도가 낮으므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홍보 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정장바지, 정장스커트의 호칭 치수 인지도

<표 7>은 KSK0051 정장 바지, 정장 스커트에 사용된 기본신체치수 및 참고신체치수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기본신체치수인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각각 89%와 55%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참고신체치수인 키는 96%, 그리고 살았뒤길리와 다리가쪽길리는 각각 3%와 4%의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정장바지 구매 시 치수적합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항목으로 생각되는 다리가쪽길리에 대한 인지도가 극히 낮으므로, 이 항목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키항목을 부가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며, 체형에 적합한 바지 선택 시 중요한 항목인 살았뒤길이 역시 인지도가 극히 낮으

므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기 방법을 고안하여 호칭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피트니스가 필요하지 않은 상의 및 전신용 의류의 호칭 치수 인지도

<표 8>은 캐주얼 상의, 캐주얼 원피스 등 피트니스가 필요하지 않은 상의 및 전신용 의류의 호칭 치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기본 신체 치수인 키의 인지가 96%로 가장 높았으며, 참고신체치수로는 가슴둘레, 허리둘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았고, 그 외 항목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기본신체치수로 길이를 예측할 수 있는 키 항목 만 표기되어 있어 품을 나타내는 항목이 필요하므로, 인지도가 높은 가슴둘레 항목을 기본신체치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셔츠, 편물제 상의류, 운동복 상의 호칭 치수 인지도

<표 9>는 셔츠, 편물제 상의류, 운동복 상의의 호칭 치수인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기본신체치수인 가슴둘레 항목에 대한 인지도는 93%이었으며, 참고신체치수 중 키에 대한 인지도는 97%, 허리둘레는 91%로 나타났다.

앞서 선호도 분석 결과에서 편물제 상의류는 하복부의 체형변화가 심한 40대 50대 여성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슴둘레항목만으로 호칭을 표기하는 것 보다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항목을 부가 표기하는 것이 체형에 적합한 의복 구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운동복인 경우, 국내 브랜드는 키와 가슴둘레 치수를 반영한 S, M, L, XL를 부가 표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디다스(adidas)와 같이 외국브랜드 들도 수출국들과의 호환성을 위해 UK(S), USA(S), J(S)의 호칭을 부가로 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브랜드 마다 다른 표기방식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표 8> 캐주얼 상의, 캐주얼 원피스, 피트니스가 필요하지 않은 상의 및 전신용 의류의 호칭 치수 인지도 [단위: 명(%)]

KS 호칭 치수	기본 신체 치수	참고 신체 치수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길이	어깨사이길이	팔길이
빈도	197 (96%)	190 (95%)	197 (96%)	146 (73%)	49 (24.5%)	8 (4%)	90 (45%)

<표 9> 셔츠, 편물제 상의류, 운동복 상의 호칭 치수 인지도 [단위: 명(%)]

KS 호칭 치수	기본 신체 치수	참고 신체 치수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어깨사이 길이	등길이	목옆젖꼭지 허리둘레선길이	팔길이	키
빈도	185 (93%)	182 (91%)	121 (61%)	14 (7%)	38 (19%)	2 (1%)	42 (21%)	193 (97%)

<표 10> 운동복 하의의 호칭 치수 인지도 [단위: 명(%)]

KS 호칭 치수	기본 신체 치수	참고 신체 치수			
	엉덩이둘레	허리둘레	키	다리가쪽길이	살았뒤길이
빈도	172 (86%)	185 (93%)	179 (90%)	6 (3%)	2 (1%)

주고 있으므로, 국제호칭체계와 호환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호칭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5) 운동복 하의의 호칭 치수 인지도

<표 10>은 운동복 하의 호칭 치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기본신체치수인 엉덩이둘레에 대한 인지도가 86%인 반면 허리둘레 93%, 키 90%로 참고신체치수에 대한 인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P, R, T와 같은 표기법을 부가 사용하여 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키 항목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므로 직접 키 치수를 부가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허리에 고무줄 처리를 하지 않은 운동복인 경우는 허리둘레 항목을 부가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론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의 의복 구입 시 구매빈도에 따른 선호도와 KSK0051에 의거한 의복 종류별 치수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의복 호칭표기에 있어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호칭표기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선호하는 상의 종류는 연령 및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차가 있었으며, 교육수준과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셔츠류 상의, 30대는 캐주얼 상의, 40대 50대는 편물제 상의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40대 50대는 체형변화가 많아 편안한 의복을 선호하므로 40대 50대를 위한 편물제 의복인 경우 체형 특성을 고려한 치수 표기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선호하는 하의 종류는 연령별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캐주얼 하의, 40대는 정장 하의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40대가 사회활동을 가장 왕성

히 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들 연령대를 타겟으로 할 경우 체형특징을 반영한 호칭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선호하는 상하연결 의류 종류는 연령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 할수록 정장 원피스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캐주얼 원피스에 비해 정장원피스는 피트성이 요구되므로 연령별 체형 특성을 반영한 호칭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연령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주거형태별 운동복에 대한 선호도에는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운동복종류에 대해 고르게 관심을 보인 결과로, 웰빙(Well Being), 로하스(LOHAS)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로 운동복에 대한 이용도와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종류별 운동복의 치수 만족도 및 호칭 표기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5. KSK0051에서 의복종류별 호칭체계에 사용한 치수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여 도출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 정상 상의와 정장 원피스의 경우는 피트성이 중요하므로 기본신체 치수인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키 이외에 참고신체치수인 허리둘레를 부가 표기한다면 소비자가 치수적합도가 높은 의복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엉덩이 둘레는 의복선택 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에 비해 인지도가 낮으므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홍보 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정장 바지, 정장 스커트의 경우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로 호칭표시를 하고 있으나 정장바지 구매 시 치수적합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항목인 다리가쪽길이에 대한 인지도가 극히 낮으므로, 이 항목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키항목을 부가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며, 체형에 적합한 바지 선택 시 중요한 항목인 살앞뒤길이 역시 인지도가 극히 낮으므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기 방법을 고안하여 호칭에 부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캐주얼 상의, 캐주얼 원피스 등 피트성이 필

요하지 않은 상의 및 전신용 의류인 경우 기본 신체치수로 길이를 예측할 수 있는 키 항목만 표기되어 있어 품을 나타내는 항목이 필요하므로, 인지도가 높은 가슴둘레 항목을 기본신체치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편물제 상의류는 하복부의 체형변화가 심한 40대 50대 여성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본신체치수인 가슴둘레 항목만으로 호칭을 표기하는 것 보다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항목을 부가 표기하는 것이 체형에 적합한 의복 구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운동복인 경우, 다양한 호칭표기방식을 병행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국제호칭체계와 호환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호칭표기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운동복 하의류의 경우 기본신체치수인 엉덩이둘레항목 외에 P, R, T와 같은 표기법을 부가 사용하여 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키항목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므로 직접 키 치수를 부가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국제 규격을 기준으로 한 ‘한국산업규격’ KSK에서 규정한 기본신체치수로 의류종류별 호칭표시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 등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류업체에서는 의복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호칭표기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본연구자는 현재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칭표기를 조사 분석하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제적으로도 호환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호칭체계에 대한 연구를 후속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여선, 성화경. (2007). 성인 남자 의류 치수체계 개발을 위한 신체치수 및 체형분석. *한국 의류학회지*, 31(2), 247-257.
- 구희경. (2007). 여자 아동복 구입시 어머니의 선호도 및 KSK 9403: 2004 호칭 치수 인지도 조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3), 87-96.
- 국립기술품질원. (1998). *국민 표준 체위 조사 결과에 따른 체형 분류 연구*. 국립기술품질원.
- 김경화, 남윤자. (2004). 성인 여성의 기성복 치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1), 143-153.
- 김경화, 어미경, 서미아. (2008). 청소년 전기남학생의 하의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6(2), 278-292.
- 김철순, 이신아. (2009). 20~49세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남성복디자인에 관한 선호도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33(2), 276-287.
- 오설영, 천중숙. (2002). 한국 여성복 브랜드의 치수체계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1), 50-61.
- 성옥진, 양정은. (2010). 남성캐주얼 의류제작을 위한 호칭별 기준 누드사이즈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4(4), 588-596.
- 이정임, 주소령. (2004). 노년 여성의 의복 제작을 위한 체형 별 치수 및 그레이딩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4), 475-476.
- 이희춘, 이원자. (2005). 여성복 업체의 재킷 치수체계와 소비자 치수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3), 27-37.
- 정삼호, 김수아. (2006). 실버의류 기성복 업체의 실태조사 연구. *한국복식학회*, 56(4), 15-32.
- 조영아. (1995). *패턴 그레이딩*. 서울: 교학연구사.
- 천중숙. (1996). 여성기성복의 치수표기법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조사 연구. *대한인간공학회지*, 15(1), 107-109.
- 한국표준협회. (2004). KSK0051: 성인 여성복의 치수.